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찬재

오늘 해는 우리 조합이 창립 10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직원 여러분과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조합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살의 우리 조합은 나무로 비교하자면 이제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밑둥을 단단하게 키우며 내실을 기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머지않아 넓은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큰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조합은 1996년 5월 9일 설비건설업체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보증기관으로 태어나 자본금 1,500억원에서 2005년 말 3,700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합원 우선·조합원 중심·조합원 만족'의 신념을 성실하게 실천해 온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성과를 토대로 한층 더 분발하여 조합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충실히 준비할 것임을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춰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우리 조합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영개선을 이루어 나가겠으며 우리 조합의 모든 업무가 조합원들에게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 최고의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 조합은 금년을 '조합원과 하나 되는 조합'이라는 경영목표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내부 시스템 강화와 새로운 경영혁신 창출을 통해 우리 조합이 조합원과 하나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이란, 먼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간과하는 것을 눈 여겨 보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남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조합은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혁신하겠습니다. 언제나 조합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일에는 우리 조합의 성장 곡선이 더욱 더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계속적이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